



4학년 학교방문 구강진료 일정 안내 (동의한 학생)

제 2024-177호

♣ 교무실 251-5811 ♣ 행정실 251-5809 ♣ FAX 251-5813  <http://www.cjsb.es.kr>

학부모 및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 『4학년 초등학생 구강진료 지원사업(4학년)』과 관련하여 참여 확대를 위해 병원 방문 진료가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동의한 학생들에 한해 구강진료를 실시**합니다.

어린이 치아우식(충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잇솔질 교육 및 전문가 불소도포(코팅)** 등을 실시하오니, 주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잇솔질교육 및 전문가 불소도포 시행]

☞ 대상 : 4학년 학생 중 학교방문 구강진료에 **‘동의’한 학생**

☞ 일정 : **2024. 11. 27.(수) 2~3교시**

☞ 장소 : 각 교실

☞ 불소도포 전 주의사항

- 당일 **아침** 반드시 **양치**를 하고 오도록 합니다.

- 당일 불소도포를 시행하기 전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불소도포 이전에 우유를 먹으면 치아 표면이 깨끗하지 못해 불소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 불소도포 후 주의사항

- 불소도포 이후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 우유, 간식 등**)

- 치은 가능한 뺏습니다.

- 불소도포 이후 최소 4~6시간 동안 양치를 하지 않아야 불소가 벗겨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4. 11. 19.

전 주 송 북 초 등 학 교

[참고]

불소도포 안내문

불소도포란 치아 전체에 불소를 도포하여 충치 예방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치아표면을 단단하게 하여 충치를 예방하며, 충치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산에 잘 견디어 치아표면을 보호해 줍니다. 또 불소막을 형성하여 세균의 효소작용을 억제하고 칫솔질로 잘 닦이지 않는 치아와 치아사이의 충치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좋은 이유는 치아가 날 때 겉표면의 법랑질은 아직 완전히 석회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어서(튼튼한 상태가 아니어서) 잇몸을 뚫고 나온 후에도 거의 2년 동안 성숙을 합니다. 이때는 불소가 특히 법랑질(치아의 겉표면)에 잘 침착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불소도포란 치아에 방탄조끼를 입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학교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불소도포법은 불소젤(APF gel)을 일회용 트레이에 넣고 마우스피스처럼 물고 있는 방법으로 불소용액양치보다 고농도의 불소를 이용하여 충치예방에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소도포 후에 입에 남아 있는 불소만 뱉어 내고 물로 헹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에 발라진 불소가 제대로 치아에 침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불소도포가 끝난 1시간까지는 침만 삼키면 되는 것이지요. 입안에 조금 남은 걸 삼켰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칫솔질**입니다.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완벽한 충치 예방은 어렵습니다.

어린이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가족의 협조가 충치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